

2008년도 9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언어 영역 •

정답

1	⑤	2	⑤	3	①	4	④	5	③	6	①	7	④	8	③
9	④	10	③	11	①	12	④	13	③	14	③	15	③	16	①
17	⑤	18	⑤	19	①	20	④	21	⑤	22	③	23	②	24	④
25	②	26	②	27	⑤	28	②	29	⑤	30	②	31	②	32	④
33	③	34	④	35	③	36	⑤	37	②	38	①	39	⑤	40	③
41	②	42	⑤	43	①	44	①	45	④	46	④	47	①	48	①
49	②	50	⑤												

해설

<1번> 이제 여러분은 교양 강좌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동양과 서양은 숫자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동양은 숫자의 발음이나 모양과 관련하여 길흉을 따진 반면, 서양은 종교적 의미와 관련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라는 숫자가 '죽을 사(死)'와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불길하다고 여깁니다. 중국에서는 '8'이라는 숫자를 길한 숫자로 생각하는데, 중국어로 '8'의 발음이 '돈을 번다'는 뜻을 가진 '발(發)'이라는 한자의 중국어 발음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자 '여덟 팔(八)'자는 양쪽으로 쪽 뺨어나가는 모양이어서 사업이 번창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한편, 서양에서 '7'을 행운의 숫자로 여기는 것은 성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물주가 엿새 만에 천지를 창조하고 칠일째 안식을 취했다고 하여 '7'이 완성과 축복의 의미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13'을 불길한 숫자로 믿는 것도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최후의 만찬 때 열세 번째 자리에 앉았다는 것에서 유래를 찾곤 합니다.

또한 수와 관련된 인식은 사람들이 가졌던 세계관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음양 사상에 익숙한 동양에서는 홀수를 '양'의 수, 짝수를 '음'의 수라 하였는데, '양'의 수인 홀수가 겹치는 날은 생기가 왕성하다고 해서 길한 날로 여겼습니다. 음력 5월 5일이 단오라는 명절이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수학의 역사에서 '0'이라는 숫자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도 불교적 세계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에서는 '공(空)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0'이라는 숫자를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었습니다.

1. [출제의도]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인도에서 '0'이라는 숫자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인도인들이 가졌던 불교의 '공(空)사상'과 관련이 있지만, 인도인들이 '0'이라는 숫자를 길하게 생각하였는지 여부는 강좌의 내용에 제시된 정보로는 파악할 수 없다.

<2번>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강연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국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너지 절약 홍보 대사 이강산입니다. 교실이 환한데도 전등을 모두 켜 놓았네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에는 이렇게 환한데도 불을 켜 놓으면 혼이 났습니다. 전기를 아껴야 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불을 꺼도 될까요? (여러명, 네!) (전등불 끄는 소리) 이렇게 불필요한 전등만 꺼도 연간 200억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조금만 주위를 살펴보면 찾을 수 있는데요. (플러그 뽑기요!) 그렇습니다. 쓰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아 놓으면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꽂아 놓음으로써 소모되는 전력을 대기전력이라 하는데, 이렇게 낭비되는 전력이 연간 소비 전력의 11%나 된다고 합니다. 가전제품의 플러그는 '전기 흡혈귀'인 셈이죠. 컴퓨터 사용과 관련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컴퓨터를 안 쓸 때는 꺼 놓아요.) 혹시 집에 있는 시간 내내 컴퓨터를 켜 놓는 친구는 없나요? 매일 한 시간만 컴퓨터를 꺼 놓아도 연간 약 100억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빈국이면서도 에너지 사용량 세계 10위, 석유 소비량 세계 6위인 에너지 소비 대국입니다. 그런데 국제유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올라가는 나귀처럼 우리 경제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에너지 절약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아끼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2. [출제의도] 강연을 듣고 강연자의 말하기 방법과 그 효과 및 목적을 알아내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제이다.

강연자는 강연에 들어가면서 학창 시절 대낮에 불을 켜놓아 혼이 난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①) 그리고 중간 중간에 '불을 꺼도 될까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등의 질문을 통해 청중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②) 또한 '연간 200억 원, 11%, 100억 원', '97% 이상', '세계 10위, 6위' 등 구체적인 수치를 이용해 상황을 말하고 있다.(③) '전기 흡혈귀', '나귀' 등의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특성과 우리의 현실에 관한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④)

<3번> 이번에는 인터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 자 : 오늘은 회사가 어려웠을 때 정리하고 댔던 직원들을 모두 복직시켜 화제가 된 김 사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사장 : 안녕하십니까?

기 자 : 김 사장님께서 부임하신 후, 해고되었던 직원들을 모두 복직시키셨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김 사장 : 직원들을 해고했던 것은 어려운 회사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 동안 저는 해고된 직원들이 힘겹게 살아간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복직을 원하는 직원은 모두 받아들여기로 한 것이죠.

기 자 : 그렇군요. 김 사장님의 이번 결정은 매우 파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사장님께서 직원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하실 건가요?

김 사장 : 네.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회사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원만한 노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기 자 : 그렇다면 사장님께서 원만한 노사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사장 : 먼저, 노사 간에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화가 없으면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리고 양보와 희생정신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거나, 자신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해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어떤 관계도 지속할 수 없다고 봅니다.

기 자 : 그렇다면 사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3. [출제의도] 방송을 내용과 관련하여 이어질 내용을 추리할 줄 아는 지 묻는 문제이다.

방송에서 김 사장이 한 발언을 통해, 노사 관계가 잘 이루어지려면, 상호간 대화, 양보와 희생, 상호 신뢰 등의 조건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①은 세 가지의 조건 중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4, 5번> 이번에는 텔레비전 대담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삽시다’의 진행자 이미용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아토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이신 최 박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최 박사님 안녕하세요?

최 박사 : 예, 안녕하세요?

사회자 : 최 박사님, 아토피는 어떤 질병입니까?

최 박사 : 예, 일반적으로 아토피는 ‘아토피 피부염’을 말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가려움증과 건조증을 동반하는데, 쉽게 완치되지 않고 계속해서 재발하는 질병이죠.

사회자 : 아토피는 가려움증과 건조증을 동반한 피부염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런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최 박사 :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식이섭유가 부족한 식습관,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와 같은 약물의 남용, 새 건축물에서 많이 나오는 포름알데히드 같은 독소 등이 아토피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피부장벽’의 기능 약화도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부장벽’의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것은 피부가 외부의 자극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자 : 아토피를 일으키는 원인이 매우 다양하군요. 원인이 다양해서 치료나 예방도 쉽지 않겠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 박사 : 아토피 환자의 피부는 외부 환경에 매우 민감하므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목욕을 자주 하는 것을 피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거나 실내에서 화초를 길러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죠. 또 실내 온도가 높으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가려움증이 심해지므로 실내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자 : 네, 그렇군요. 그밖에 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최 박사 : 예, 식생활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나 인스턴트 식품, 밀가루 음식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조기나 굴비 같은 흰 살 생선, 뼈째 먹는 멸치나 뱀어포, 신선한 야채와 과일 등을 먹는 것은 아토피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자 :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고 식생활에도 주의한다면 아토피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되겠군요.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출제의도] 대담에 언급된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최 박사’의 마지막 발화에 따르면 피해야 할 음식은 등 푸른 생선이고, 흰 살 생선은 아토피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④는 이 대담에 제시된 내용을 반대로 이해한 것이다.
5. [출제의도] 대담을 듣고 사회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대담에서 사회자는 ‘아토피는 가려움증과 건조증을 동반한 피부염이라는 말씀이시군요.’,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고 식생활도 주의한다면 아토피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되겠군요.’ 등과 같이 ‘상대방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며 이어서 청취자가 궁금하게 여길 만한 내용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이끌어가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6.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글을 쓸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주제를 담은 이야기이므로,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한다.’는 내용(①)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7. [출제의도] 개요를 작성한 후 수정·보완을 정확하게 할 줄 아는지를

- 를 묻는 문제이다.
어떤 내용을 글 속에 추가할 때는 그 내용이 글의 통일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㉔에서 수정하기 위해 제시한 ‘안전 관련 법안 정비’라는 내용은 ‘안전 교육 실시’와는 관련이 없다. ‘안전 교육 실시’에 관련 있는 내용이라면 ‘강사 양성을 통한 교육 내실화, 교육 시간 확보’ 등이라 할 수 있다.
- [오답풀이] ① ‘현황’을 알리는 데 좋은 방법은 ‘통계’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② ‘안전 의식’과 ‘안전사고’는 다른 것이며, ‘가~라’의 내용과 관련 있는 것은 ‘안전사고’이다. ③ ‘안전 관리 체계’는 안전 관리를 위해 조직이나 기능이 짜임새 있게 된 것을 말하는데, ‘관리 기관’은 조직으로서 그 속에 포함된다. ⑤ ‘자연 재해’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 즉 지진, 태풍, 홍수 등을 말하고, ‘안전사고’는 공장이나 공사장 등에서 안전 교육의 미비, 또는 부주의 따위로 일어나는 사고를 말한다.
8. [출제의도] 내용에 따라 글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나)는 우리나라의 자전거 수송 분담률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다)는 자전거 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문두에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글을 쓴다고 했으므로, 이와 관련해 성격에 맞지 않는 자료를 찾아야 한다. ③의 경우 자전거 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있다는 것은 국내 여건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자전거 수송 분담률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그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다.
 9.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맞게 문장을 쓸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생활 습관’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 조건과 연쇄법, 점층법이라는 표현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하므로 ‘하루의 행동이 일상의 습관을 낳고, 일상의 습관이 평생을 좌우한다.’가 정답이다.
 10. [출제의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의 흐름에 맞게 고쳐 쓸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 앞에서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에서는 ‘일에 쫓기’는 상황을 제시하여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의미를 강화해 주어야 앞뒤 문맥이 자연스러워진다. 따라서 ㉠은 ‘그들은 일에 쫓기더라도 시간을 쪼개 운동을 한다.’로 고쳐주어야 한다. 또한 ㉢은 바로 뒤에 나오는 문장과는 서로 반대가 되는 내용을 담은 동시에 앞에 나오는 문장의 내용과 연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밝힌 ㉠이 들어가야 문맥이 자연스러워진다.
 11. [출제의도] 문맥에 맞게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망(眺望)’은 ‘먼 곳을 바라본다.’는 뜻의 단어로 ‘조망이 좋다’, ‘조망이 탁 트이다.’ 등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①번은 문맥상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지켜보겠다는 의미의 어휘를 사용해야 하므로 ‘한발 물러나서 어떤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을 바라본다.’는 뜻의 ‘관망(觀望)’을 선택해야 한다.
 12. [출제의도] 중의적 의미를 지닌 문장의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㉔ ‘남편은 나보다 드라마를 더 좋아한다.’는 남편이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드라마를 더 좋아하는 것인지, 남편이 내가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인지 의미가 모호하다. 하지만 ‘나보다’와 ‘드라마를’의 어순을 바꾸어 ‘남편은 드라마를 나보다 더 좋아한다.’로 고친다고 해도 이 중의성은 해결되지 않는다. 이 중의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편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드라마를 더 좋아한다.’나 ‘남편은 내가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드라마를 좋아한다.’와 같이 고쳐야 한다.

[13 - 16] (가) 이육사, 「꽃」 / (나) 김광규, 「대추나무」 / (다) 이성부, 「누룩」

(가) 이육사, 「꽃」
극한 상황에서도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작품이다. 이 시는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잖는’, ‘북쪽 툄드라’라고 하는 극한적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화자가 바라는 이상적 상태는 ‘꽃’, ‘꽃 땀아리’, ‘제비떼’, ‘꽃성’ 등의 시어와 관련해서 드러내고 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상황을 대비시켜 미래에 대한 강한 염원을 노래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려 하는 작품이다. 마지막 연에서는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의 삶이 정당했음을 드러내는 발상으로 씌어져 독자의 상상력에 대한 호소력이 강하다.

(나) 김광규, 「대추나무」
대추나무의 생태적 특징에 주목하여 어려움이나 고난을 극복하고 남들을 이롭게까지 하는 삶을 염원하는 작품이다. 대추나무는 봄에 꽃과 나무가 나지 않고 있다가 여름이 되어야만 잎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이 열매는 돌아가신 조상뿐 아니라 현재의 우리에게도 이롭다. 이러한 대추나무의 생태적 특징을 의인화의 수법, 의문형의 반복, 다른 대상과의 비교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다) 이성부, 「누룩」
누룩은 자신이 ‘씩어 문드러져야’ 다른 물질을 발효시키는 역할을 한다. 누룩의 이러한 속성과 그 변화 과정을 통해 자신의 희생을 통해 이타적 행동을 하고 그에 따라 기쁨을 얻는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누룩이 남을 발효시킬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 즉 누룩이 뜨지 않은 상태는 ‘나자빠져 있다’고 부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남에게 이타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게 중요하며, 그렇게 해서 숙성된 누룩이 자신은 ‘씩어 문드러지며’ 다른 물질을 발효시키는 데서 자기희생이 우리 삶의 일부이어야 함을 효과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13. [출제의도] 작품 사이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나)와 (다)는 대상 즉 ‘대추나무’와 ‘누룩’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적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인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인간이 아닌 대상에 인간적 속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의인화의 표현을 통해 구체화된다. (나)에서는 ‘수많은 손과 수많은 팔’, ‘빈 마음 벌거벗은 몸으로’ 등의 표현에서 ‘대추나무’의 모습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고, (다)에서는 ‘저 혼자 무력(無力)함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나자빠져 있다가’, ‘저 혼자서 찾는 길이’ 등의 표현에서 ‘누룩’이 변화하는 과정을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며 유기적으로 시를 이해할 줄 아는지 묻는 문제이다.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는 현실의 어려움을 모두 극복했을 미래의 화자가 미래의 시점에서 과거 즉 현재의 어려움을 돌아볼 때 느끼는 감회를 나타낸 표현이다. 즉 미래의 시점에서 과거를 회고하는 심리적 상태를 표현한 말이다. 이 감회는 무한한 기쁨을 줄 수 있기에 화자가 현실의 어려움, 즉 고난이나 장애를 극복하는 데 힘을 주고 있다. 그런데 ③은 이 표현을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가로막는 장애로 보았으므로 표현의 함축적 의미를 정반대로 파악하였다.

15. [출제의도] 시의 표현 기법 및 함축적 의미를 비교하여 감상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A]와 [B]에서는 대상의 변화 과정이 나오는데, 이 과정에 모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곳은 없다. [A]에서는 ‘대추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유익한 일을 하는 변화를, [B]에서는 ‘누룩’이 ‘씩어 문드러져’ ‘춤도 되고 기쁨도 되’는 변화를 노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A]와 [B] 모두 대상의 변화 과정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 [출제의도] 구체적인 시어를 통해 시적 의미를 도출하여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줄 아는지 묻는 문제이다.

누룩은 스스로가 숙성되어 만들어지고, 이 누룩을 밥과 같은 재료에 넣어 물을 부으면 밥이 발효된다. 이 과정에서 누룩은 스스로가 ‘씩어 문드러진다.’ 즉 누룩은 자신이 희생됨으로써 남을 이롭게 하는 물질이다. 따라서 3연에서 ‘삭고 삭아 부서지는 일’은 누룩이 스스로가 희생되는 과정으로 남을 위해 희생을 하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다.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을 나타내는 시어로는 2연의 ‘엄동설한’과 같은 표현을 들 수 있다.

[17 - 19] 출전 : 안병직, 「오늘의 역사학」

이 글은 거시사와 미시사의 차이점을 미시사를 중심으로 해서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거시사와 미시사의 연구 대상, 자료, 연구 방법 등을 대비시켜 설명한 다음 거시사가 소홀히 한 부분을 미시사가 보완해줌으로써 온전한 역사 서술을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17. [출제의도] 각 단락의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마) 단락의 핵심 내용은 ‘거시사와 미시사 연구의 전망’이 아니라 거시사와 미시사의 장단점이다.

[오답풀이] (가) 단락에서는 역사 연구에 거시사와 미시사의 두 방법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 (나) 단락에서는 거시사 연구의 특징을, (다) 단락에서는 미시사 연구의 특징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다. (라) 단락에서는 미시사의 구체적 사례로 포이케르트의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18. [출제의도] 거시사와 미시사의 특징을 항목별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미시사 연구의 단점은 ‘개별적 현상이나 독자성 무시’가 아니라 ‘역사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개별적 현상이나 독자성을 무시하는 것은 역사의 큰 틀을 중시하는 거시사 연구의 특징에 해당한다.

19. [출제의도] 거시사와 미시사의 특징을 대조적으로 파악하여 둘 사이의 관계를 추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거시사는 역사의 큰 틀을 중시하여 국가의 흥망과 같은 사실을 중요하게 다루고, 미시사는 개인들의 구체적 삶을 중시하므로 역사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시사와 미시사가 서로 보완하는 관계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20 - 23] 출전 : 쫓대 박물관, 「쫓대 이야기」

우리의 전통 자물쇠의 재료, 종류, 구조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비밀자물쇠의 원리를 설명하고 그것의 정교함을 자세히 해설하여 전통 문화재에 대한 자부심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한다.

20. [출제의도] 중심 화제에 관한 핵심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할 줄 아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전통 자물쇠의 재료는 첫째 단락에서, 전통 자물쇠의 구성 요소와 기본형은 둘째 단락에서, 전통 자물쇠의 종류는 셋째 단락에서 알 수 있으나, 전통 자물쇠의 개선점은 이 글에서 알 수 없다.

21. [출제의도] 글의 특정 정보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한 문제이다.

비밀 자물쇠가 열기 어려운 이유는 셋째 단락에 나온다. 사전 조작 과정에서 열쇠 구멍이 보이지 않아 그것을 찾아야 한다.(③) 그런데 ⑤에서 사전 조작 없이 본조작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조작 이전에 사전 조작을 해야 한다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2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시각 자료를 통해 이해하는 능력을 알아 보기 위한 문제이다.

비밀 자물쇠의 열쇠 구멍을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정면의 단추를 올림(ㄴ)과 동시에 잠글쇠를 당기는 것(ㄷ)이다. 그 다음

에 잠글쇠 반대편 장식을 돌리고(ㄱ) 자물통 밑바닥의 장식을 오른 쪽으로 밀면(ㄴ) 열쇠 구멍을 볼 수 있다.

23. [출제의도] 단어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와 같은 다른 사례를 찾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제이다.

<보기>에서 본 바와 같이 ‘잠글쇠’는 동사의 어간과 관형형어미, 명사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이와 같은 것은 ‘빨쌌’이다. 이것은 ‘빠다’의 어간 ‘빠-’에 관형형 어미 ‘-ㄴ’, 그리고 명사 ‘쌌’이 붙은 말이다.

[오답풀이] ①은 ‘끝’이라는 동사 어간에 ‘-개’라는 접사가 붙은 파생어이고, ⑤도 역시 ‘기울-’이라는 동사의 어간에 ‘-기’라는 접사가 붙은 파생어이다. ③의 ‘출발지’는 ‘출발’이라는 명사에 ‘-지’라는 접사가 붙은 파생어이고, ④는 ‘바늘’과 ‘집’이라는 명사가 합쳐진 합성어이다.

[24 - 27] 출전 : 김갑수, 「동양의 화론과 기운생동」

동양 회화의 중요한 창작 원리 및 비평 기준인 기운생동에 관하여 장언원과 곽약허의 견해를 중심으로 해설하고 정신적인 측면을 중시한 동양 예술의 특성을 밝히고 있다.

24.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어떤 글의 제목은 그 글의 핵심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동양 미술에서 강조하는 기운생동의 의미를 장언원의 해석과 곽약허의 해석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동양 미술에서의 기운생동의 의미임을 알 수 있다.

25.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곽약허의 해석에 의하면 생동하는 기운을 얻기 위해서는 ‘세속의 때’, 즉 인위에 의해 형성된 사유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곽약허가 인위에 형성된 사유의 틀을 중시하였다.’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26. [출제의도] 글에 제시되어 있는 특정 인물의 관점을 구체적인 작품에 적용하여 감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장언원은 그리려는 대상, 특히 살아 움직이는 대상인 경우 그 대상의 감정이나 생각, 기운 등이 충분히 드러나야 한다고 해석하여, ‘기운생동’의 ‘기운’을 그리는 대상의 ‘생명력’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장언원이 작품을 감상한다면 작품을 보면서 작품 속에 그려진 대상의 생명력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감상할 것이다.

또 곽약허는 세속적 가치, 욕망 등 ‘세속의 때’를 씻고 나아가 자기 자신마저 잊기 위한 정신 수양을 통해 대상과 하나가 되는 높은 경지에 도달해야 무한한 감동을 주는 기운생동의 작품을 그릴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해석을 통해 볼 때, 그가 말하는 ‘기운생동’의 ‘기운’은 대상보다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곽약허가 어떤 작품을 매우 훌륭한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다면, 그는 화가가 대상과 하나가 되는 높은 경지에 도달해서 작품을 그렸을 것이라고 감상하였을 것이다.

27. [출제의도] 부정적 의미를 지닌 어휘를 사용한 글쓴이의 의도를 이해하고 이와 유사하게 쓰이고 있는 어휘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 중에는 ‘따위’처럼 그 어휘 자체에 부정적인 의미를 지녀서 항상 부정적인 상황에서만 쓰이는 어휘를 ‘부정 가치어’라고 하고, 항상 긍정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어휘를 ‘긍정 가치어’라고 한다. 또 긍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어휘 자체에는 긍정적인 의미나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니다. 이런 어휘를 ‘중립 가치어’라고 한다.

이 글의 글쓴이는 어휘 자체에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따위’를 사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밀한 모사나 화려한 채색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새끼’는 욕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지만,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에 쓰인 ‘새끼’는 욕하는 말이 아니라 ‘자식’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때의 ‘새끼’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어휘가 아

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의미를 자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어휘를 사용하여 부정적 생각을 드러내는 ‘따위’와는 그 쓰임이 다르다.

[28 - 31] 출전 : 박완서, 「자전거 도둑」

수남이는 주인 영감의 돈도 지켜 주고 스스로도 안전해질 수 있도록 본의 아니게 ‘자전거 도둑’이 되고 만다. 하지만 그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갈등하는 수남이의 모습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우리 자신이 추구해야 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28. [출제의도] 서술 시점의 변화에 따른 효과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소설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이면서도 1인칭 주인공 시점이 혼재되어 있다. [A]는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의 서술이고, <보기>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는 인물의 행동을 관찰만 하므로 그 심리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상할 여지가 넓지만,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자신의 심리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으므로 독자가 상상할 수 있는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오답풀이] ① 책을 집어 던지고, 안절부절못하는 이유가 낮에 했던 자전거 도둑질 때문이란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③ 1인칭 주인공 시점이므로 자신의 심리가 세밀히 드러난다. ④ 주인 영감님이 “네놈 꼴이 꼭 도둑놈 꼴이다.”고 한 말을 추가하여 갈등의 초점이 도둑질한 행동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⑤ ‘낮에 내가 한 짓은 옳은 것이었을까?’라고 스스로 물어 보는 부분이 추가되어 고민하는 모습이 강화되었다.

29. [출제의도] 소설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주인 영감이 “네놈 오늘 운 났다.”라고 칭찬할 때 수남이는 ‘영감님의 손이 싫다’고 생각한다. 또한 마지막 장면에서 도덕적으로 견제해 줄 어른이 그림자처럼 짐을 꾸리는 행동은 수남이가 주인 영감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저녁 시간은 공부를 하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다. ② 수갑을 차고 순경들에게 끌려왔던 형의 모습을 떠올리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아버지의 당부를 떠올리는 장면에서 알 수 있다. ④ 짐을 꾸리는 모습에서 떠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30. [출제의도] 등장인물의 행동에 따른 심리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자전거를 ‘타고 달릴 때보다 더 신나게 달렸다’는 것은 승용차 주인에게 수리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더불어 수남이의 내면에 있는 부도덕성으로 인한 쾌감이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큰 돈을 물어야 하는 수남이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다. ③ 낮에 있었던 일로 인해 평소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갈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자신에게 도둑놈의 피가 흐른다는 생각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짐을 꾸린다는 것은 주인 영감을 떠나는 것을 암시하는 행위이므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아 갈등이 해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 [출제의도] 표현에 드러난 상징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작품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수남이가 자전거를 들고 왔을 때 좋아하면서 칭찬하던 주인 영감의 얼굴을 ‘누런 똥빛’으로 느끼는 것은 도덕이나 양심보다 물질적 이익을 중시하는 세태를 상징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수남이의 갈등이 해소되는 모습을 ‘누런 똥빛이 말끔히 가시고, 소년다운 청순함으로 빛났다’고 표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주인 영감이 기성세대에 해당하므로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③ 험난한 세상을 꺾듯하게 헤쳐 나가려는 자세는 주인 영감에게서 찾을 수 없다. ④, ⑤ 주인 영감의 삶이 궁핍한지, 사회적 규범에 억눌린 삶을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32 - 35] 출전 : 전정례, 「인간 언어와 동물 언어」

인간 언어의 본질, 즉 자의성과 이원성, 분절성, 창의성, 상호교환성, 전위성 등에 관하여 동물 언어와의 차이점을 말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32. [출제의도] 글의 주제, 글쓰기 방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줄 아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언어의 ‘자의성과 이원성’, ‘분절성’, ‘창의성’ 등이다. 이것은 언어의 본질적 속성이다. 이 글에서는 그것을 동물 언어와의 차이점을 통해 말하고 있다.

33.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문제이다.

<보기>의 ‘존’과 ‘영희’ 사이의 대화에서 과거의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므로 과거의 사실을 현재의 시간에 표현할 수 있다는 언급은 <보기>에 적용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② ‘(지시된) 나무’를 한국어와 영어에서 각각 ‘나무’와 ‘tree’라고 한다는 것은 언어가 뜻과 소리로 이루어진 기호이고, 그 둘 사이에 필연성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④ ‘존’과 ‘영희’ 사이에 묻고 대답하는 것이 교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송신자와 수신자의 역할을 바꾸는 것이다. ⑤ ‘존’이 한국어의 ‘나무’를 이용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고 있는 것은 새로운 언어 표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34. [출제의도] 세부적인 글의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문제이다.

언어를 뜻 조각으로 나누는 것과 소리 조각으로 나누는 것은 별개의 분절이다. 따라서 특정한 언어 표현을 음소로 분절한다고 해서 그 표현의 뜻 조각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② ‘바람+이+부+ㄴ+다’는 가장 작은 뜻 조각인 형태소로 분절한 것이라는 진술에서 ‘-이’나 ‘-ㄴ-’이 뜻을 가진 형태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A]를 통해 문장은 뜻 조각과 소리 조각으로 나눌 수 있고, 또 그것들을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문장을 나누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5. [출제의도] 인간의 언어와 동물의 언어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신호의 경우 어떤 물리적 사실이 다른 물리적 사실과 연관된다는 것은 그 둘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㉓는 내용과 표현 형식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나 ㉔는 인간 언어와 같이 내용과 표현 형식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㉓와 ㉔를 나누는 기준은 내용과 표현 형식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36 - 38] 출전 : 한상인 외, 「시사생활경제」 중 ‘환율이 높으면 좋은가’

환율의 개념을 소개하며, 환율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적으로 설명하면서 환율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본문에서 언급된 세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업체들이 수입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화가 많아지기 때문에 수입 단가가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자재의 수입 가격 역시 올라간다고 해야 한다.

37. [출제의도] 글을 쓰기 위해 글쓴이가 사용한 설명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글쓴이는 ‘환율’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결정되고,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환율이 오를 때와 내려갈 때 국내 경제에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인과적으로 분석하여 설명하고 있다.

38. [출제의도] 글에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A ~ B 기간은 환율이 올라가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로 수출업체의 수익성이 좋아지는 반면, 수입원가가 비싸져 수입이 줄어든

다. 반면 C ~ D 기간은 환율이 내려가 원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시기로 수출업체들의 수익성은 나빠지지만, 수입업체들이 지불해야 할 수입 대금은 줄어든다.

[39 - 43] (가) 박은, 「택지에게 화답을 청하며」 / (나) 윤선도, 「오우가」 / (다) 법정, 「상면(相面)」

(가) 박은, 「택지에게 화답을 청하며」

본래 ‘열흘 동안이나 장마가 계속되어 문에 찾아오는 손님이 없고 쓸쓸한 느낌이 들어, ‘구우래금우불래(舊雨來今雨不來)[예전에 비가 올 때는 사람들이 찾아오더니 지금은 비가 와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구나]’로 운을 삼아 택지에게 보내어 화답을 청하며[霖雨十日門無來客悄悄有感於懷取舊雨來今雨不來爲韻投擇之乞和示]’라는 긴 제목을 지닌 총 7수 중 첫 번째 작품이다. 혼자 술을 마시는 적적한 심사를 뜻이 맞는 친구와 같이 하고 싶은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나) 윤선도, 「오우가」

수석(水石)과 송죽(松竹)과 달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자연물을 통해 작가의 세계관을 드러낸 작품이다. 변화무쌍한 세계와 달리 변함없고 절개를 지키며 말없이 덕을 베푸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다) 법정, 「상면(相面)」

이름만 전해지는 스님 ‘적연선사’와의 정신적 사귀를 그린 수필이다. 글쓴이는 ‘적연선사’를 엄격하고 타협을 모르는 고집불통 스님이었으리라 생각했으나 스님이 남긴 거문고와 통소를 보고 생각이 바뀐다. 그 유물을 보고 글쓴이는 스님이 인간적인 여백을 지녀 훈훈한 친화력을 느끼게 하는 분이라 여기게 된다.

39. [출제의도] 작품 사이의 공통점을 찾아 비교할 줄 아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가)~(다) 중 과거 지향적 태도를 보이는 작품은 없다. (가)의 화자는 세태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 지향적 태도는 취하지 않는다. 다만 소박하게 친구와의 만남을 원할 뿐이다. (나)에서는 과거와 관련된 요소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다)에서 ‘적연선사’라는 이미 돌아가신 인물과의 교감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과거 지향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다만 ‘적연선사’와 같은 인물이 좋은 사람이 아니냐는 느낌만 나타나 있을 뿐이다.

40. [출제의도] 주어진 시각에 의해 시를 분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가)는 화자와 택지와 관계를 두보와 자위자의 관계에 견주어 있다. 이 과정에서 화자는 자신의 적적하고 쓸쓸한 심정을 친구를 통해 해소하기를 바라고 있다. 화자의 경우와 두보의 경우에 해당하는 각각의 요소를 찾을 수 있다. ③에서 ‘수레와 말’은 화자가 처한 현실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로 ‘고관’들이 누리는 부귀영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술병’도 화자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로 택지가 갖고 오기를 바라는 물건이다. 따라서 둘 다 화자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이지 두보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다.

41. [출제의도] 구절의 함축적 의미를 비교하여 이해할 줄 아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㉓는 글쓴이가 ‘적연선사’와 정서적 교감을 통해 얻은 선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글쓴이는 ‘적연선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선사를 꼬장꼬장하고 타협을 모르며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지니고 시시콜콜하게 경전에 집착하는 도승이라 짐작했었다. 하지만 선사가 남긴 유물을 접하고 나서, 글쓴이는 선사가 서글서글한 눈매를 하고 허우대가 늘씬하며 걸걸한 목청으로 회심가를 부를 줄 아는 인물 즉 ‘인간적 여백’을 지닌 인물이라 생각하게 된다. 새롭게 인식한 선사의 모습이 ㉓이므로 ㉑, ㉔이 정답이다.

42. [출제의도] 시상 전개 과정에 따라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이해하며 감상할 줄 아는지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 시상 전개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부분은 제1수이다. 제1수에 나온 순서 즉 수석(水石), 송죽(松竹), 달 등의 순서대로 시상이 전개된다. 그리고 제6수는 달[월(月)]을 노래하고 있어 제2수~제5수의 각 작품과 대등하다. 따라서 제6수의 소재가 이전 소재의 속성을 아우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못하다.

43. [출제의도] 글쓴이의 인식이 변화하게 된 계기를 찾을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다)의 글쓴이의 '적연선사'에 대한 인식은 특정한 계기를 통해 변화하게 된다. 그 계기를 통해 글쓴이는 '적연선사'가 타협을 모르는 고질불통이었으리라 생각했다가 인간적 탄력이 있는 인물이라 생각하게 된다. 둘째 문단의 '이렇듯 선사와 상면(相面)하게 된 계기는 줄이 다 해진 거문고와 손때가 뻘 통소에서였다'는 문장을 통해 볼 때, 인식 전환의 계기는 '선사가 남긴 거문고와 통소를 접하게 된' 사실임을 알 수 있다.

[44 - 46] 출전 : 작자 미상, 「금방울전」

인간 세계에 해룡으로 환생한 동해 용왕의 아들과 금방울로 환생한 남해 용왕의 딸이 서로 만나 결합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금방울이 해룡을 도와 요괴를 퇴치한 뒤, 액운을 다한 금방울이 껌질을 벗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해룡과 재결합한다는 내용으로 설화적 요소가 짙은 작품이다.

44. [출제의도] 사건이 전개되는 공간의 성격을 이해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해룡이 악귀를 물리치고 공주를 구하는 활약을 펼치는 공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약을 통해 해룡이 신분적 평등을 이룩하는지는 지문에 주어진 정보로는 파악할 수 없다.

[오답풀이] ㉡ ㉠은 현실 세계와는 다른 공간이나 현실세계에 있는 궁궐과 성곽 등을 갖춘 것으로 보아 현실계를 바탕으로 형상화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 악귀의 소굴이라면 어두컴컴하고 아비규환의 지옥 같은 공간이 펼쳐지리라 예상하는데, ㉠은 '천지가 명량하고 일월이 조요'하며, '구름 같은 석교 위에 만장폭포가 거룩'하여 경계가 뛰어나고 선경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공간이다. ㉣ 해룡이 지척을 분별할 수 없는 데 죽을 힘을 다하여 찾아가는 것으로 보아 ㉠은 현실계의 인간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임을 알 수 있다. ㉤ 잡혀온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해룡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은 잡혀온 공주와 여자들이 벗어나고 싶어 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45. [출제의도] 근원 설화와 소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무신'이 수박으로 변신하여 악귀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지문의 '해룡'은 악귀의 배 속으로 들어간 금방울 덕분에 비교적 쉽게 악귀를 물리치는 것으로 보아 비범한 인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지문의 해룡은 혼자 악귀의 소굴로 들어가므로 <보기>의 무신과 달리 하인들의 배신으로 시련을 겪지 않는다. ㉡ 지문에서는 공주가 보검을 갖다 주어서 악귀를 죽이게 되고, <보기> 역시 공주들의 도움으로 악귀를 물리치게 된다. ㉢ 지문과 <보기> 모두 중심인물이 악귀의 소굴로 가서 공주를 구하는 이야기이다. ㉤ <보기>의 무신은 납치된 공주를 구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악귀의 소굴로 간 반면, 지문의 해룡은 공주가 소굴에 납치된 사실도 모르고 단지 금령을 구하기 위해 악귀의 소굴로 갔다.

46. [출제의도] 꿈의 기능과 내용을 파악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꿈속의 선관이 꿈의 내용을 누설하지 말라는 금기를 제시했는데 공주가 이를 어기지만, 이것이 공주의 불행이나 좌절로 이어지는 않는다. 보통 전설에서는 금기가 제시되고 주인공이 이 금기를 지키지 않아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지만, 이 작품에서는 해룡이 악귀를 물리

침으로써 공주가 구출되는 행복한 결말 구조로 끝난다.

[오답풀이] ㉠ 선관이 내일 오시에 한 사람이 들어와 공주를 구출할 것이라는 내용을 말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 ㉡ 해룡이 동해 용왕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해룡이 전생에 고귀한 신분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 해룡과 공주가 인연이 있는 것은 하늘의 명령이라 말함으로써, 해룡과 공주가 맺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 공주의 꿈속에 선관이 나타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아 공주가 하늘의 보호와 도움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7. [출제의도] 인물의 심정을 한자성어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공주가 해룡의 은혜를 죽어서도 잊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에 나타난 공주에 심정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한자성어는 '각골난망(刻骨難忘)'이다. '각골난망(刻骨難忘)'은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혀지지 아니함.'이란 의미이다.

[오답풀이] ㉠ 노심초사(勞心焦思) :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 ㉢ 오매불망(寤寐不忘) : 자나 깨나 잊지 못함. ㉣ 학수고대(鶴首苦待) :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림. ㉤ 풍수지탄(風樹之歎/風樹之嘆) :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여윈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

[48 - 50] 출전 : 최변각 외, 「교양으로 읽는 과학의 모든 것 2」

이 글은 지구 표면에 있는 충돌구의 수가 다른 행성들에 비해 적은 원인을 밝히고 있는 설명문이다. 혜성이나 소행성들이 지구로 떨어질 때 마찰로 튀겨버리거나 태워서 부피나 속도를 줄이는 대기의 역할과, 바다로 떨어질 경우 충돌의 충격을 완화하는 바닷물의 역할을 제시했고, 보다 핵심적인 이유로 판의 이동으로 인한 지질 활동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48. [출제의도] 글의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달이나 수성에 비해 지구에 충돌구가 적게 나타나는 현상이 대기와 바닷물의 역할, 판의 이동에 의한 지질 활동 등에 그 원인이 있다며 각각의 원인을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49.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판의 이동은 지질 활동을 유발하는데, 이 지질 활동으로 인해 충돌구가 파괴되거나 사라질 수는 있어도 더 커질 수는 없다.

[오답풀이] 지질활동은 충돌구가 파괴되거나 사라지게 한다고 했고 (㉠, ㉤), 충돌체가 대기와의 마찰로 인해 타버리거나 속도가 줄어들어 충돌 충격을 줄여 충돌구의 크기를 줄여 준다고 했다(㉢). 또 이 충돌구는 5억 년 전에 생성되었으므로 바다에 생성되었다면 사라졌을 것이다. 바다에 생성된 충돌구는 2억 년 이상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했기 때문이다. (㉣).

50.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소행성이나 혜성 등이 태양계 행성과 충돌하는 빈도수가 감소한 것이 달이나 수성에 비해 유독 지구 표면에만 충돌구 수가 적은 원인은 아니다. 소행성이나 혜성 등이 태양계 행성과 충돌하는 빈도수가 감소하는 것은 태양계 행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지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